농약기사, 정확하게 보도하라

저독성 중독가능성 희박

농약연구소 진상 조사결과

지난 6.15일字 H일보〈조간〉「독자투고」란에는 "농약과용이 생명위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인즉 딸기 5근을 사다 먹고 중독되었는데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해본 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농민들이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한 후 충분한 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 시장에 출하했다는 것이다.

—◇—◇—◇—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 金永九연구관은 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투고자의 집을 수소문끝에 찾아냈다.

그러나 투고자인 「徐대식」이라는 인물은 그 곳에 살고 있지도 않은 인물이었으며 백승윤양의 어머니(백봉현씨 부인 : 백봉현씨는 사업관계로 지방에 거주 중) 말을 들어보면 『식구가 적어 1회에 5근씩 딸기를 산적이 없고, 최근 딸기를 구입하여 먹은 후 중독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신문보도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중대부속여중 1학년인 백승윤양도 담임선생입회하에 『딸기를 먹고 중독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에 딸기를 먹은일도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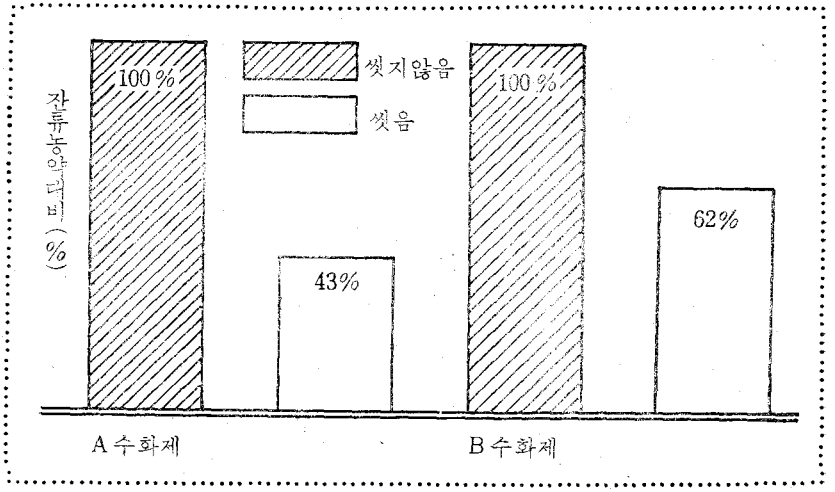
—◇—◇—◇—

농약過用이 생명위협

딸기사먹고 中毒 병원입원

살포후 성급한 出荷등 문제

□ H일보의 허위보도 내용 □



◇ 딸기 씻기 전후의 농약 잔류성

이에 대해 H일보 독자란담당기자는 주요 독자투고내용에 대해서는 가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도하지만 위기사는 독자의 투고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한편 농약연구소는 ▲딸기재배시 살포하는 농약은 저독성으로 인체에 대해 안전성이 높으며 ▲수퍼마켙에서 판매하고 있는 딸기중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허용치에 크게 미달되었다고 밝히고 ▲잔류농약도 일단 물로 씻으면 씻지 않은 것에

◇ 수퍼마켙 판매 딸기 중 농약 잔류량조사('83.4)<5개소, 20점>

농 약	잔류량(ppm)			잔류허용량(ppm) (C)	대비		일일섭취허용량(mg/人)	딸기섭식가능량(일일섭취허용량기준) (kg/人·日)
	검출빈도(%)	최대치 (A)	평균 (B)		A/C	B/C		
A수화제	40	0.006	0.0014	10(FAO/WHO)	1/1,660	1/7,140	18	3,000
B수화제	40	0.33	0.1	3(과일, 일본)	1/10	1/30	—	—

비해 38% 이상 소실될 뿐 아니라 ▲다량의 농약을 고의(故意)로 살포하지 않는 한 딸기중의 잔류농약에 의한 중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사회공기로서의 「매스콤」의 무책임한 보도의 한면을 드러냈다.